

한중경제포럼

제14-01호 2014년 4월 16일

2014년 양회 분석

2014년 제1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2014년 양회 분석
2. 일 시 : 2014. 3. 27(목) 16:00~18:00
3. 발표자 : NDRC 경제연구소 순쉐궁(孙学工) 부소장

1. 금년도 중국경제 동향

가. 2014년 중국 경제사회 발전 전망

□ 경제성장의 주요 예측목표

- 7.5% 내외의 GDP 성장률
- 3.5% 내외의 물가 상승률
- 1,000만 명 이상의 도시 신규 취업자 수
- 4.6% 미만의 도시登記失業者
- 균형적인 국제수지 및 경제성장 속도와 일치한 주민소득 증가

□ 경제성장 목표: 수요와 가능성 고려

- 고용창출, 안정적인 예측, 2020년 소강사회(小康社会)의 전면 건설 등 수요를 고려하였음.
- 중국 경제는 조정단계에 있을 뿐 둔화된 것은 아니며, 잠재 성장률은 7.5% 내외임.

- 소비와 산업구조 고도화, 도시화와 지역 균형발전, 인재와 개혁 보너스, 국제 경제환경의 호전 등 요인으로 인해 7.5% 내외의 경제성장률이 실현 가능함.

□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의 병행(并行)

- 개발도상국가의 소득증가는 구조조정의 중요한 동력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구조조정을 견인함.
- 혁신은 구조조정의 중요한 추진력이며, R&D 투자는 주기적인 것으로 경제성장은 R&D 투자 증가를 견인함.

□ 1/4분기의 경제둔화는 금년도 경제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1/4분기 중국경제가 현저하게 하락하여, 예측목표인 7.5%보다 낮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경제둔화의 주요요인은 단기적 및 주기적인 변동요인으로 야기된 것으로, 추세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음.
- 경제둔화 원인: 수출의 마이너스 증가, 따뜻한 겨울로 인해 영향 받은 전기난방 산업, 자동차 산업의 주기적인 변동
- 요식업, 담배, 주류 등 산업에서의 일부 구조적인 변화요인도 있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음.
- 부동산 및 관련 산업은 변화를 더 지켜봐야 함.

□ 금년도 성장목표 달성의 난관과 도전

- 생산과잉
- 기업 효익(效益)의 하락
- 각종 리스크 방지
- 자원 환경에 대한 제약 강화

□ 여지를 남겨둔 인플레이션 목표

-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통제 가능함.
 - 글로벌 경제의 회복과 지연정치 형세의 긴장으로 인해 주요상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
 - 자원성 상품의 가격개혁과 의료 진료비 개혁도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하지만 공업품 출하가격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식품가격 역시 안정적이므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통제 가능함.

- 금년도 인플레이션은 3% 내외로 예상됨.

2. 거시정책 및 중점 개혁분야

가. 거시정책

□ 거시정책 방향

- 안정적인 거시정책, 융통성 있는 미시정책, 사회근간을 지탱하는 사회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 계속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임.

□ 적극적인 재정정책

- 재정적자는 지난해보다 1,500억 위안 증가된 1조 3,500만 위안 달성할 것이지만, 적자율은 여전히 2.1% 내외를 유지할 것임.
- 재정지출 구조를 고도화하고 '삼공경비(三公经费, 공무접대·해외출장·관용차)' 등의 일반적인 재정지출을 엄격히 통제하며, 과학혁신·인프라시설·도시공사·보장성 주택·환경보호·사회보장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해야 함.

□ 온건한 통화정책

- 안정적인 통화금융 환경 조성, 긴축도 완화도 아닌 통화정책 실시, 광의 통화 M2 예상증가율을 13% 내외로 확정, 사회융자 총량의 합리적인 성장을 유지함.
- 금융구조 고도화, 통화량 활성화, 증기분 최적 활용, 합리적인 수준의 대출 실현(有保有压)을 통해 마이크로형 기업·농업·정보소비·선진제조업·전통산업 개조·환경보호 등 분야를 지원하고 생산과잉과 오염·에너지 소비가 높은 분야에 대한 대출을 제한함.

나. 중점 개혁분야

□ 개혁조치

- 개혁심화를 위한 동력 부여

- 올해 정부공작의 우선 임무는 개혁임.

□ 행정체제 개혁 심화

- 2013년 416건의 행정심사 사항에 대해 취소·권한이양을 실행한 기초 하에서 올해 200건 이상의 항목에 대하여 취소·권한이양을 실행하며, 심사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시함.
- 사전승인서 심사를 취소·간소화 하고 기업투자자의 주권을 구체화함.
- 공상등기제도를 개혁하여 "등록자본 납부인가제"注册资本认缴制), "先 영업허가증 취득, 后 증명서 발급 수속", "연차보고서 공시제도"를 실시함.
- 사중·사후(事中事后)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사회 신용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며, 기업 블랙리스트 제도를 구축함.

□ 재세(财税)체제 개혁

- 전면적이고 규범화된 투명한 예산제도를 실시함.
- 일반 이전지출 비율을 향상시키고 전문 이전지출을 1/3로 감소시킴.
- 세제개혁: 영업세 개혁 시범을 철도, 우편, 전자통신 분야로 확대시키고 소비세와 자원세 개혁을 추진하며, 부동산세와 환경보호세 입법을 추진함.
- 중앙과 지방의 행정권과 지출책임 관계를 조정하고 기존 재무패턴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함.
- 규범화된 지방정부의 차입금융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방정부 채무를 예산관리에 포함시킴.

□ 금융체제 개혁 심화

- 금리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환율의 양방향 변동구간을 확대하고 위안화 자본항목의 태환을 추진함.
- 민간자본으로 중소은행 등 금융기구를 설립하고 민간자본이 금융기구 주식에 투자하도록 함.
- 주식발행 등록제도 개혁을 추진함.
- 온라인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감독관리 조율 메커니즘을 구축함.

□ 기본경제제도 견지 및 완비

- 혼합소유제 경제의 발전을 추진함.
- 국유자본 투자회사의 시범을 추진함.

- 공공재정에 납입되는 중앙기업과 국유자본의 수익 비율을 향상시킴.
- 비국유자본의 중앙기업 프로젝트 진입방법을 제정하고, 금융·석유·전력·철도·전자통신·자원개발 및 공공사업 등 분야에서 비국유기업을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를 마련함.
- 철도분야의 투자 및 용자 개혁을 추진함.
- 비공유제기업의 특허경영 분야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함.

□ 대외개방 확대

- 설립(准入) 전 내국민 대우를 실현함.
- 통관 원활화 개혁을 가속화함.
-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함.
-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함.

□ 저우추취(走出去)의 가속화

- 대외투자 관리방식 개혁을 추진하여 등록제를 위주로 하며, 심사권한을 이양함.
- 건전한 금융, 법률, 영사업무 서비스를 보장함.
- "실크로드 경제벨트, 해상 실크로드"(一带一路)와 중-파키스탄 인접지대(两廊建设) 건설을 추진함.

□ 양·다자 지역개방 협력을 동시 추진

- 서비스무역협정, 정부조달협정, 정보기술협정 협상을 추진함.
- 중미, 중유럽 간의 투자협정 협상을 추진함.
- 한국, 호주, GCC와의 FTA 협상 추진을 가속화함.

3. 외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외자기업에 대한 개혁의 적극적인 영향

□ 외자기업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 조성

- 개방을 통한 개혁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였고 외자에 대한 중국의 메리트를 유지함.

- 행정축소와 권한이양을 통해 외자기업은 더 큰 투자자주권을 획득함.
- 외자기업의 시장진입을 확대하여 외자기업이 서비스업과 독점산업에서 더 많은 발전기회를 얻도록 함.

<질의·응답>

질문 1.

1/4분기 경제지표가 예측목표보다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경제는 예측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셨는데 그 판단근거는 무엇인가? 경제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인가?

답변 1.

1/4분기 경제속도의 둔화는 일시적이고 주기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임. 특히 따뜻한 겨울날씨 영향을 받아 전력산업의 증가속도가 둔화되었고 대외수출 역시 낙관적이지 못하였음. 하지만 IMF, FRB 등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올해 글로벌경제 성장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 중국의 수출 증가도 좋은 발전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신규 고용창출에 따라 주민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소비를 더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올해 중국의 투자가 직면한 도전이 비교적 큼. 하지만 그중 부동산투자는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살펴봐야 함. 정부의 보장성주택 건설을 통해 시장의 투자를 어느 정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됨.

경기부양책의 실시 여부는 경제성장이 합리적인 구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기존 구조조정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경제가 급격히 둔화될 경우, 성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임. 기존에 이미 여러 부문에서 경기둔화에 대한 예비 대응안을 확보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임.

질문 2.

중국의 리스크문제와 관련해서 그림자금융이 많이 논의되고 있으며, 2014년 1월에 "107호 문서(国办107号文)"를 발표하였음. 하지만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관리에 있어 중국인민은행과 은감회에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중국인민은행은 은행의 부외업무 감소를 통해 그림자은행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려는 입장이지만, 은감회는 재테크상품, 신탁, 은행간 업무 등 은행업의 혁신을 촉진하려는 입장인데 우선 그림자금융에 대한

정의가 확실해야만 관리가 가능할 거 같음. 그림자금융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최근에 회사채와 관련해서 상하이 차오르(超田)가 회사채시장에서 첫 번째 디폴트를 일으켰으며 술라, 부동산 등 기업의 신용위험이 확산되고 있는데 중국정부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대로 둘 경우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답변 2.

"107호 문서"는 전반적으로 중국 그림자금융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음. 물론 그림자금융에 리스크가 내포된 것도 사실임. 작년에 중소은행의 은행간 업무를 통해 대출과 자산규모가 증가되었음.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관리는 각 부문사이의 조율이 필요하고,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각이한 금융 업무에 대해 각각 다른 감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중국인민은행은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지만, 기존 관리능력의 결핍으로 인해 부외업무 감소 등 규모 통제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 은감회의 핵심 업무는 중국인민은행과 다른바, 감독관리 개선보다는 금융효율 향상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음. 이러한 입장 차이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해야 함.

회사채시장에서 디폴트의 발생은 사실상 시장경제 운영의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사실 외부에서 회사채에 대해 정부의 은폐적인 담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부담을 가중하였으며 리스크 통제에도 불리함. 이번 디폴트 발생에 대해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기존의 사고방식에 변화를 가져다주었음. 따라서 중국 각계에서는 이번 회사채 디폴트의 발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채권시장에서 디폴트의 발생은 은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회사채 디폴트의 발생을 계기로 하여 채권시장에 대한 리스크 인식을 향상시켰지만,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부동산 기업 등 은행대출을 얻은 기업이 은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러한 은행과 관련된 기업이 부도가 난다고 할지라도 은행은 충분한 감당능력을 확보하였음. 기존 중국의 은행은 부실채무 규모가 작고 수익률과 자본충족률이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이 막강하며, 단기내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질문 3.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 내외"로 확정하였는데 "내외"란 단어를 통해 여지를 남겨둔 것인가?

답변 3.

여지를 남겨둔 것임. 사실 7.5%는 중앙이 각계에서 제안한 수치의 중간치를 취한 것으로, 7.5%보다 약간 높거나 낮은 수준은 모두 허용되는 것임. 하지만 7%보다 낮을 경우 경제둔화 우려가 증폭될 것임.